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

2019. 7. 8. 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(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)

배포일시	2019. 7. 7. (일)	담당부서	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
담당과장	윤영진 과장(044-203-5750)	담 당 자	권순목 서기관(044-203-5751) 이윤섭 사무관(044-203-5754)

태평양동맹*과 준회원국 가입 협상 개시

- 태평양동맹 정상회의(7.6, 페루 리마)에서 9월중 협상 개시 합의 -

- 중남미로의 수출 다변화 본격 추진 -

* 멕시코, 페루, 칠레, 콜롬비아로 구성된 중남미의 대표적 지역경제연합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7.6일 페루 리마에서 개최된 제14차 태평양동맹**(Pacific Alliance, PA) **정상회의를 계기로 한국의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금년 9월중 개시하는데 합의했다고 발표했다.**

○ 태평양동맹은 멕시코, 페루, 콜롬비아, 칠레 4개국이 '12년 결성한 지역경제연합(전세계 국내총생산(GDP)의 2.5% 차지)으로, '17년 준회원국 지위를 창설하였으며, **준회원국 가입은 태평양동맹과의 양자 자유무역협정**(FTA)**체결을 의미**한다.

○ 태평양동맹은 준회원국 확대를 위해 **호주, 뉴질랜드, 싱가포르, 캐나다 4개국과 '17년부터 준회원국 가입 협상**을 추진해 왔다.

□ 그간 태평양동맹은 기존 **4개국과의 협상이 종료된 후 한국과 협상을 개시한다는 입장**이었으나, 이번 합의를 계기로 우리나라와 태평양동맹간 협상은 **기존 4개국과의 협상 진행 경과에 무관하게 9월부터 개시될** 예정이다.

○ 이는 **'18.7월 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후보국 지위가 선언***된 이후 다양한 채널을 통해 **조속한 협상 개시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온 결과이다.**

* '18.7월 태평양동맹 정상선언 내용 : 태평양동맹-호주·뉴질랜드·싱가포르·캐나다 협상 종료(현재 협상 진행 중) 후 한국과의 협상 개시

○ 특히, **한-칠레 정상회담('19.4월), 국무총리-콜롬비아 대통령 회담**('19.5월) 등 **정상 차원의 설득**을 통해, **한국의 준회원국 가입 협상을 조속히 개시**하기 위한 **태평양동맹 측의 공감대를 확보**하였으며,

○ 지난 5월 멕시코에서 개최된 태평양동맹 차관회의 참석 등 **태평양동맹 4개국과 수차례에 걸친 고위급 협의**를 통해 이번 제14차 태평양동맹 정상회의에서 협상개시 합의를 도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.

□ 이번 가입 협상 개시를 합의한 것은 다음의 의미가 있다.

❶ 중남미 시장으로 적극적 수출 다변화 발판 마련

□ 한국과 태평양동맹은 올해 **9월중 협상의 첫 번째 단계로서 협상세칙**(ToR) **협상을 개시**하기로 이번에 합의하였다.

□ 태평양동맹은 전체 국내총생산(GDP) 2.04조불, 인구 2.3억명으로 **중남미에서 가장 개방적**이며, **우리와 상호보완적 경제구조**를 가지고 있고, 향후 **중산층이 성장할 잠재력이 큰 시장**으로 알려져 있다.

□ 산업부는 이번 태평양동맹 협상 개시와 함께 현재 진행 중인 한-메르코수르 무역협정(Trade Agreement, TA) 협상 등도 조속히 추진하여 북미-중미-남미로 이어지는 **미주 대륙을 연결하는 자유무역협정 연결망**(network)을 조속히 구축함으로써 **수출선 다변화**를 적극 추진한다는 계획이다.

❷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 체결 효과

□ 특히, 멕시코는 **우리나라의 10대 수출국이자 중남미 1위 교역국**임에도 우리와 **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아, 우리기업은**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미국, 유럽연합(EU), 일본 등 **경쟁국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으나**

○ 이번에 우리의 **준회원국 가입 협상이 개시**됨으로써 **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을 맺는 효과**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.

* 페루('11.8월, 발효기준), 칠레('04.4월), 콜롬비아('16.7월)와 자유무역협정 기체결

○ 또한, '02년 발효된 한-멕시코 투자보장협정(BIT)을 한층 선진화하여 우리 기업의 **멕시코 투자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.**

❸ 기존 자유무역협정 및 통상규범의 선진화

□ 산업부는 **이번 태평양동맹 협상을 통해 그간 국제 통상규범의 변화 추세에 맞춰** 칠레, 페루, 콜롬비아 등 태평양동맹 **3개국과 기 체결한 자유무역협정을**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.

○ 태평양동맹 국가들은 각종 다자 및 양자 통상 협상에서 **전자상거래, 환경 등 최신 글로벌 통상규범을 적극 수용해 온 국가**들로서

○ 이들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 자유무역협정 및 통상규범을 선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.

□ **또한 전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있는 환경 하에서, 자유무역을 지향한다는 공통점**이 있는 (like minded countries) 태평양동맹 국가들과 한국의 공조 강화는, **아시아와 중남미의 대표적 개방형 통상국들이 규범에 기반한 다자무역체계**(rule-based multilateral trading system)**를 지향하는 협력을 확대**한다는 의미가 있다.

* 칠레는 전세계 64개국, 전세계 국내총생산(GDP)의 86.3%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전세계 자유무역협정 연결망 1위국 / 멕시코, 페루도 50개국 이상과 자유무역협정 체결

□ 여한구 통상교섭실장은 금번 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개최된 **태평양동맹 및 참관국**(옵서버 국가)* **장관회의에 참석**하여, 무역원활화,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(Global Value Chain, GVC) 참여 등을 통한 **한국과 태평양동맹 국가들 간 협력 방안을 논의**하였으며,

* 태평양동맹 옵서버 : 57개국(한국, 미국, 중국, 일본, 캐나다, 독일, 프랑스, 호주 등)

○ 무역과 통관절차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싱글윈도우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물류 시간·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온 **한국의 경험을 소개**하면서, 태평양동맹 **국가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인프라 및 제도 측면에서 발전**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.

○ 또한, 멕시코와의 양자회담에서는 태평양동맹 협상과 함께 **양국 간 무역·투자 확대 및 경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자유무역협정** 프레임워크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.

□ 향후, 정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**우리기업들의 태평양동맹 시장 접근성 개선**을 추구하는 한편,

○ 국내산업의 **민감성**을 고려하기 위해 **이해관계자 의견**을 **최대한 수렴**, **우리 협상전략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태평양동맹 준회원국 가입의 혜택이 경제 전반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**이다.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 협상총괄과 이윤섭 사무관(044-203-575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